

2015년 2월 9일 새벽정리요약말씀

아침 말씀하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기본이 닦여진 터전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그 이상을 바랄 수가 없고, 하나님도 역시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절대법칙은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우리들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세계도 기초를 벗어나면 안 되고, 기초가 닦여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큰일을 하고 싶거든 그만큼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더 이상적으로 기초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되기를 원하여야 합니다.

각 교회가 불어나려면 첫째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기본적인 것이 닦여져 있어야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에 대한 것이 잘 닦여져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세계로 보면 잘 가르치는 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강사가. 그리고 관리하는 자가 잘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직에 있어서 모두 잘 갖춰져 있어야 교회가 자동적으로서 교인들이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완벽히 되어있고 자기가 완벽히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완전치 못한 사람들은 늘 완전치 못한 대화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완전된 자에게만 완전된 말을 할 수 있지, 미완성적인 사람은 미완성적인 얘기밖에 못합니다.

본인이 중심이 딱 서있지 않고 신앙의 중심이 서있지 않은 이런 상태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이 닦여져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사고가 납니다.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넘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이 완벽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없고, 줄 것이 있을지라도 절대 줄 수가 없다!

아침에 산기도할 때 이런 말씀이 왔습니다.

우리들은 뒤바뀌어서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천국의 자민권이 됐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오면 살 수가 있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면 못 삽니다. 너무 괴로워서 못 삽니다.

이래서 우리는 마음을, 뜻을, 목숨을 다해서 기초를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닦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퍼부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

리의 신앙이 되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날마다 기초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기초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초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단단한 곳에 물이 고이듯이 여러분 마음도 기초가 튼튼하고 단단해야 무엇인가 고이고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초를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의 기초>를 단단히! 마음을 고치고, 근본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기초를 닦는 일을 하고 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기초를 닦아라. 말씀을 봐라.” 합니다.

우리들은 지극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닦아야 됩니다. 안 닦고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닦고, 양심도 닦고, 행실도 닦고! 닦는다는 것은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내가 닦아놓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도 복의 근원에 동참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닦아서 여러분들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엄청난 것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닦아 들어가야 됩니다. 닦아야 잘 된다는 것입니다. 쉬워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다른 것보다도 터득하고, 닦고, 깎고, 자르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살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삽니다.

닦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아라! 행동을 닦아라! 길을 닦아라! 말씀으로 깎고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느 부분을 닦을 것인가? 나는 어떤 것이 닦을 것인가?’

가다보면 부딪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가다보면 걸리잖아요? 그것을 깎으라는 것입니다. 가다보면 역시 뭔가 거추장스러운데 그것을 닦고 깎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이 되는 현상입니다. 기본이 되어있어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고, 자기 양심도 닦고, 잘못된 사고를 전부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해나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성신은 원리원칙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린아이가 칭얼거리면 해 주지만 하나님은 원리원칙입니다. 더러우면 통하지 않고 깨끗해야 통하고, 나아가서는 의심하면 안 통하고 절대 믿어야 통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행해나가야 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통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가까이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안 돼서 못 통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조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안 되면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만큼 말씀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통하냐? 이미 조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통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통합니다. 조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통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많이 깨닫고, 섭리를 따라오기 때문에!

어떤 입장과 똑같으냐면 이미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얘기하는 것은 더 높은 것이 있고, 더 많이 받을 것도 있고, 더 얻을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얻을 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닦으라고 했습니다. 깎으라고 했습니다.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편하다고 했습니다. 돌도 자르고 끊고 문질러서 건물을 짓듯이 너희들도 신앙의 건물이 되는 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영부영 따라왔지만, 이제는 모두 깎고 끊고 자르라고 했습니다. 깎고, 자르고, 다듬은 다음에 대리석 건물이 되듯이, 우리 신앙도 깎으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급해서 깎지 못하고 끊고 말아버리는데 끊고서 문지르고 다듬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흑암도 어둠도 이기고, 원칙적인 진리의 말씀 앞에 도전해서 영원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삼고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을 중심한 전국과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약한 자, 아픈 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모두가 치료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마귀와 사탄을 전멸시키고, 날마다 주의 성지 땅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국 230군데의 교회와 온 지구촌을 돌아보시옵소서.

특히 일본에서 공산당들이 우리 단체를 지적하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한 대로 심판함이 크시옵소서. 그 뿌리들이 그곳에 있고, 종교들이 왔다 갔다 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사 여호와의 말씀의 검이 그곳을 치리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수고하는 애쓰는 캠퍼스와 모든 직장들,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모든 관리하는 자들을 기꺼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를 찬미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닦아나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모두 잘되고 형통되기를 원하노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